

李無影의 初期作品에 나타난 文學思想 研究

—無依支와 廢墟에의 鬪魂—

李 東 熙*

- I. 緒言·感動的 思想과 行動의 形象 III. 無依支와 廢墟에의 鬪魂
II. 李無影의 初期作品에 對한 考察 IV. 結語·李無影 初期 思想의 意義와 發展

I. 緒言·感動的 思想과 行動

文學作品의 思想은 作品의 內容을 規定짓는 主題이며 作品 속에 흐르는 리듬이다. 文學은 生의 記錄이요 人生의 批評이라고 할 때 文學思想은 文學作品 속에 潛在한 生의 意味이며 作家가 表現하려는 眞實한 生의 方法인 것이다.

思想은 作品의 偉大性을 決定짓는 要素이며 그 思想으로 해서 作品이 時代性 社會性 永遠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思想은 社會的인 것이기 때문에 M. 아놀드 같은 사람은 偉大한 文學을 만드는 데는 個人의 힘과 時代의 힘이 結合되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思想으로서가 아니라 文學作品으로서의 存在價値를 갖는다고 할 때는 獨創的인 情緒와 想像과 文體로 表現된 思想, 藝術的으로 昇華되고 形象化된 思想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思想이 없으면 快樂主義的인 大衆文學이 될 것이요, 思想이 너무 두드러지면 功利主義的인 目的文學이 될 것이다.

文學作品의 思想 主題 등을 內部라 하고 言語 文體 構造 등을 形式이라고 보던 見解⁽¹⁾와 前者를 文學의 外的 條件으로 그리고 後者를 內的 條件으로 보는 見解⁽²⁾가 있지만 嚴密한 意味에서 作品의 內的條件과 外的條件을 分離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발레리가 그의 「文學論」에서

* 文理科大學 助教授, 現代文學

(1) 崔載瑞: 文學概論(語文閣, 1963), p. 381.

作品을 內容과 形式으로 갈라 이미지·思想·感情·行動·性格·事件 등을 內部라 부르고, 言語·리듬·스타일 등을 形式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별은 엄밀한 의미에서 근거가 없다.

(2) 丘仁煥·丘昌煥: 文學概論(三英社, 1976), p. 56.

요즈음 New Critic들은 文學을 이루는 요소들 內外 條件으로 나누어 思想이나 主題 등 소위 內容은 外的 條件, 즉 文學의 非本質的 要件으로 취급하고, 言語나 構造 등 소위 形式은 內的 條件, 즉 本質的 要件이라 하여 중요해 한다.

〈思考는 詩句 속에서는 과일 속에 묻힌 營養素와 같이 숨겨져 있어야 한다.〉고 하였듯이 文學思想은 文學作品 속에 溶解되어 있는 存在로서 마치 과일 속에서 滋養分만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것과 같으며 〈지금 닥 벌어지고 있는 춤에서 舞蹈家를 어떻게 分離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W. B. 예이츠가 지적한 대로 內容과 形式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內容과 形式은 서로 有機的으로 融合되어 形成되는 것이며 그것은 言語的인 構造와 形象化에 의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文學思想이 되기 위해서는 위즈워드가 말한 〈感動的 思想〉이 되지 않으면 안되며 아무리 偉大한 理念이나 思想이라 할지라도 藝術的 形象化를 獲得하지 못하면 생소한 이데올로기나 口號에 그치며 注入式 說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論理는 계속 再論되고 있는 參與文學論에도 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不條理한 社會, 不當하게 迫害 받는 民衆의 現實에 대해 反抗 告發하는 參與의 精神은 하나의 散文精神이며 詩精神이다. 그리고 그런 反抗과 告發 등으로 이루려는 政治 社會的인 矛盾에 대한 行動은 政治的 社會的 또는 歷史的으로 重要的 意味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素材만으로서의 價値를 넘어 文學的 價値를 갖기 위해서는 前述한 文學的 形象化가 前提되어야 하며 그런 〈感動的 行動〉의 形象이어야만 文學的 生命을 갖는 것이다. 行動主義文學 狀況小說 抵抗小說 抵抗詩 등을 포함한 모든 參與文學의 結論은 그와 같이 내려질 수 밖에 없다. 純粹·參與 또는 어떤 形態의 文學이든 散文精神 詩精神과 같은 文學精神이 살아있어야 하듯이 文學的 感動의 리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農民文學 農村文學, 農民小說 農村小說 하는 素材主義的인 作品의 創作 또는 그 解釋도 이 論理에 代入될 수 있다. 農民階級의 擁護, 農村現實의 告發 또는 田園回歸에의 禮讚, 農民農村의 理想的 模型의 構想 등 무엇이 되었든 文學的 形象化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素材的인 意味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文學的 本質的 條件을 確認해 두는 데는 두 가지 意圖가 있다. 하나는 여기서 考察하려는 李無影의 初期 作品들의 文學思想은 그런 觀點에서 研究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글이, 李無影의 初期의 思想이 뒤에 李無影의 文學思想으로 規定지어진 農民精神 農思想으로 連結해보고자하는 題材主義的인 側面으로 考察해보고자한 관계로 作品의 形象에 대한 接近이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하는 뜻에서이다.

Ⅱ. 李無影의 初期作品에 대한 考察

1. 處女作 周邊

農民 農村 素材로 韓國農民의 史的 追求, 農民의 意識 農村의 現實과 理想을 昇華시킨 『農民』 『第一課 第一章』 등의 力作을 남긴 李無影(1908~1961)의 處女作周邊을 考察해보므로써 初期의

不確實했던 부분을 整理해 두고자 한다.

그동안 發行된 여러 종류의 李無影 選集이나 全集 등에 收錄된 年譜나 辭典類에 依하면 李無影이 18세가 되는 1926년에 長篇小說「依支없는 靈魂」을 19세가 되는 1927년에 長篇小說「廢墟」를 刊行하였다고 되어 있다. 꼭 나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20세때 處女作 短篇「犧牲花」를 발표한 玄鎭健이나 20세에 長篇小說「幻戲」를 東亞日報에 連載하여 天才作家로 話題를 모았던 羅稻香보다 빠른 나이이며 1년이 안 되어 다시 長篇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威力을 보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短篇도 아니고 長篇을 그것도 弱冠 미만으로 같은 기간에 두 편씩이나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李無影의 處女作이 發表되기까지의 背景을 먼저 살펴 본다.

李無影은 1908년 忠北 陰城郡 陰城邑 오리골(官名 碩人里)에서 李德汝씨의 7男妹중 次男으로 出生하였다. 本名은 甲龍이며 1929년부터 쓰기 시작한 無影이라는 雅號이자 筆名을 1959년 4월 10일字로 淸州地方法院忠州支院의 허가를 받아 他界하기 2년 전에 戶籍의 이름으로 고쳤다. 그것은 筆名과 本名 두 이름으로 하여 實生活에 많은 不便을 겪다가 고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戶籍의 李無影 欄에 出生地가 陰城邑 邑內里라고 記載되어 있으나 ① 李無影의 生時에 作成된 年譜에 오리골로 되어 있는 點 ② 「어머니는 產期를 기다리다가 그 해(戊申年)東學亂으로 나를 배 속에 넣으신 채 陰城邑에서 五里쯤 되는 <오리골>이라는 그야말로 山間草屋에서 나를 낳았습니다.」⁽³⁾라고 述懷하고 있는 點 ③ 未亡人 高日新女史와 筆者가 1976년 9월 11일 踏查한 陰城邑 碩人里 2區(오리(鴨)골) 住民들이 전해 들어 알고 있는 것과 ④ 6.25때 李無影이 이 마을 金錫鉉(56세·當時)씨 집에 들러 「여기가 나의 生家」라고 한 點 ⑤ 1981년 7월 27일 踏查⁽⁴⁾時, 이 마을에 살다 대장리 산지마을에 살고 있는 李潤燮(70세)씨에 의하면 金氏의 윗집인 李基麟(里長)씨 집에 慶州 李氏⁽⁵⁾가 살다갔다는 말을 先親에게 들었다고 한 點 등으로 미루어 보면, 邑內里에 住所를 두고 있을 때 온통 義兵亂으로 나라 안이 떠들썩하던 때라 이 골짜기로 亂을 避해 갔던 중에 出生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李無影의 本籍地는 5세때 이사한 忠北 中原郡 新尼面 龍院里로 되어 있다. 李無影은 여기서 少年期를 보낸 것이다. 뒤에 같이 「朝鮮文學」을 創刊 主宰한 詩人 李洽(本名 李康洽)과 같이 자라고 私立 龍明學校를 같이 다녔다. 李無影은 이 學校를 卒業하자마자 서울에 올라와 徽文고등보통학교에 入學하여 4년만에 中退를 하였다. 이 時節의 이야기는 그의 童話「木馬타던 시절」⁽⁶⁾에 잘 나타나 있다. 나이가 한 살 모자라 메를 쓰고 사정 사정하여 들어갔다는 그는 여기서 安住하지 않고 2학년 때부터 뜻을 두고 있던 文學修業을 爲하여 渡日하였다. 그는 특히

(3) 「新東亞」 1932. 8. p. 84.

(4) 檀國大 國文科 現代文學修練會 李無影 生家 踏查

(5) 李無影의 本貫이 慶州이며, 그 이후 이 마을에는 慶州 李氏가 들어와 산 일이 없다고도 하였다.

(6) 「한국일보」 1955. 11. 20~12. 11(未完)

日作家 田山花袋의 「蒲團」을 읽고 感動되어 文學에 뜻을 두었다고 한다.

李無影은 苦學으로 成城중학교에 들어갔다가 다시 中退하고 日作家인 加藤武雄의 門下에서 4년동안 小説修業을 받았다. 여기서 李無影은 日本文學은 물론 佛文學 露西亞文學을 다 涉獵하였고 여러 편의 小説을 쓰게 되었다. 그가 最初로 發表한 「達順의 出家」 그리고 最初의 長篇인 「依支할 곳 없는 青春」과 「廢墟의 울음」⁽⁷⁾은 다 이 무렵에 쓴 것으로 보인다.

進學할 形便도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小説공부를 本格的으로 하려던 李無影은 4年間 大學講義를 듣는 대신 作家를 찾아 갔던 것이고 거기서의 讀書와 訓練은 어느 作家보다도 急成長할 수 있었던 것이다.

李無影은 1929년 作家修業을 마치고 두 卷의 長篇도 出刊한 바 있는 故國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李無影은 아직 名聲 있는 作家로 待遇를 받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그가 發表한 作品 아니면 發表의 方法에 問題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1958년 民衆書館에서 나온 韓國文學全集 10卷 「李無影選集」의 年譜에 作者가 밝혀 놓은 것과 그 前에 李無影이 여기저기 밝혀 놓은 것 그리고 筆者의 踏查, 未亡人 高日新女史와의 面談의 資料로 연결지어 본 것이다. 前記 「李無影選集」의 年譜는 李無影이 作成하여 준 것으로서(未亡人 高女史談) 그 뒤에 나온 年譜들이나 辭典類들은 그것이 바탕이 되었고 1974년 李無影의 15週忌에 新丘文化社에서 만든 「李無影代表作全集」 5년 末에 수록된 年譜는 筆者가 당시까지의 資料를 綜合하여 作成한 것이다.

2. 初期의 作品年譜

李無影의 最初의 作品 「達順의 出家」를 發表한 1926년에서부터 處女作이라고 지칭한 「叛逆者」 「두 訓示」를 發表한 1932년까지에 發表된 作品年譜를 여기 收錄하므로써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거나 正確히 記載가 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아 이 時期 部分을 整理해 두려는 것이다.

(1) 小説

- 達順의 出家 1926년 6월 朝鮮文壇 (李龍九)
- 依支할 곳 없는 青春 1926년 5월 25일 靑鳥社 (彈琴臺人)
- 廢墟의 울음 1927년 4월 18일 靑鳥社 (彈琴臺人·李龍九)
- 錯覺感 1929년 6월 2~8일 東亞日報 (李無影)
- 八年間 1929년 9월 朝鮮講壇 (李無影)
- 老婆 1930년 1월 19, 21~26일 朝鮮日報 (李無影)
- 錯覺의 嫉妬 1930년 2월 27~3월 12일 朝鮮日報 (李無影)

(7) <廢墟…>의 <廢…>는 <廢…>로 써야 옳을 것 같은데 表紙 面紙 등에 다 이렇게 되어 있다.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의 冊背 廣告에는 「廢墟…」로 되어 있고 뒷날 年譜에는 「廢墟…」로 쓰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옮긴다.

八年間—續篇— 1930년 3월 大衆公論 (李無影)
 아내 1930년 10월 新生 (李無影)
 미남의 최후 1930년 ?월 新趣味 (미상)
 龜城令監과 醫學博士 1931년 1월 新生 (李無影)
 嗚咽 1931년 2월24~28일 3월4~6일 朝鮮日報 (李無影)
 叛逆者 1931년 5월8, 9, 12, 13일 朝鮮日報 (李無影)
 叛逆者 1931년 12월~1932년 12월 批判 (李無影)
 破綻 1932년 1월 映畫時代 (李無影)
 두 訓示 1932년 5월 東光 (李無影)
 世昌針 1932년 7월 新東亞 (李無影)
 흠을 그리는 마음 1932년 9월 新東亞 (李無影)
 約婚顛末 1932년 10월 彗星 (李無影)

(2) 詩

咀呪 1929년 3월8일 東亞日報 (李龍九)
 봄이 왔다보다만 1929년 3월24일 東亞日報 (李龍九)
 어머니! 1929년 5월17일 東亞日報 (李無影)
 이 아침에 부른 노래 1932년 7월 新東亞 (李無影)
 절로 우는 心琴 1932년 7월 新東亞 (李無影)

(3) 戲曲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 1932년 1월2~4일 東亞日報 (李山)
 어머니와 아들 1932년 5월28~31일 朝鮮日報 (李無影)
 모는 者 쫓기는 者 1932년 5월 新東亞 (李無影)

(4) 童話

薔薇와 피꼬리의 설음 1928년 5월1일 東亞日報 (李龍九)
 옛장사 이야기 1929년 10월24~27, 29일 朝鮮日報 (李無影)
 江南떠난 阿房鳥 1929년 12월3~5일 東亞日報 (李山·미확인)

(5) 童詩

가난뱅이 엄마 1929년 6월19일 東亞日報 (李無影)

(6) 隨筆

憂愁日誌 1931년 4월 新生 (李無影)
 自殺漫談 1931년 11월6~12월6일 東亞日報 (李無影)
 삶과 죽음 1932년 5월 批判 (李無影)

一日三厘로 延命—饑餓의 線上을 넘어서— 1932년 6월 批判 (李無影)

(7) 기타

내게 感化를 준 人物과 그 作品—彷徨하였을뿐— 1932년 3월9일 東亞日報 (李無影)

3. 세 作品에 대한 書誌

(1) 「達順의 出家」

李無影이 最初로 發表한 作品은 方仁根이 主宰하던 朝鮮文壇 1926년 6월호의 「達順의 出家」로 보인다. 李龍九라는 兒名으로 投稿하여 當選한 글이다. 13篇의 當選詩 1篇의 當選小說과는 별도로 실린 두 篇의 當選文 中の 하나로 공트라고 할만한 잘막한 小說이다. 菊版으로 된 이 冊의 416페이지 2단부터 418페이지 2단까지 掲載된 것으로 원고지 13枚 정도의 分量이다. 國漢 混用體. 글의 末尾에는 「1925. 11. 25(江戶에서)」라고 되어 있다. 江戶는 東京의 옛이름으로 日本에 들어가서 써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2) 「依支할 곳 없는 青春」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은 1927년(昭和 2年, 以下 西紀 年號를 사용함) 5월 25일 春城 盧子泳이 經營하던 靑鳥社에서 처음 刊行되었다. 4·6判 217페이지의 이 冊은 가로 右讀으로 <依支할 곳 없는 青春/彈琴臺人>이라고 인쇄한 밑에 <1927> <靑鳥社>라 인쇄되어 있다. 面紙에는 세로 2行으로 <彈琴臺人作/長編小說/依支할 곳 없는 青春>이라 되어 있고 縱組의 本文 1페이지에도 <依支할 곳 없는 青春> <彈琴臺人作> 이렇게 題目과 作者가 써어 있다. 그리고 뒤의 版權欄에는 <著作者 兼 發行者 盧子泳>으로 되어 있다.

彈琴臺人은 李無影의 雅號이며 李無影이 作成한 年譜에 밝힌 「依支없는 靈魂」과 年代가 맞으며 거기에는 原名이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이라고 밝혀 놓았다. 그래서 이것은 李無影의 作임이 確認된다. 뒷날 李無影은 이에 對한 사랑을 분명히 해두고 있다.⁽⁸⁾

版權에 依하면 著作者가 盧子泳이 된다. 當時 著作者는 著作權 所有者와 같은 意味로 사용된 例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正確히 記載한 것이라 할 수 없겠다.

이 小說은 머릿말 뒤에 <1927. 3. 22日 東京에서 作者>라고 써 놓은 것으로 봐서 日本에 들어가서 써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章으로 650枚 정도의 分量이다.

(3) 「癡墟의 울음」

「癡墟의 울음」은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을 發刊한지 1년이 채 못된 1928년 4월 18일 같은 靑鳥社에서 刊行되었다. 4·6判 274페이지로 「依支할 곳 없는 青春」보다 57페이지 더 많지만 分量은 650枚 정도로 비슷하고 16章으로 章을 나눈 手法도 비슷하다. 冊의 末尾에 <1926. 2. 3 正午 脫稿/東京 多摩川에서>라고 적어 놓아 「依支할 곳 없는 青春」보다 1년 전에 역시 東京에서 써

(8) 李無影: 『無影의 辨』 「東亞日報」, 1957. 4. 4

보낸 것임을 밝히고 있다. 原稿는 1年前에 쓰고 出版은 1년 뒤에 되어 脫稿한지 2년 만에 2冊이다.

이 冊의 表紙에는 가로 右讀으로 題目과 發行年度 出版社 이름만 인쇄되어 있고 作者는 밝혀 놓지 않았다. 面紙에는 세로로 <李龍九作/長編/小說/廢墟의 울음>이라고 되어 있고 縱組의 本文 1페이지에는 題目 밑에 <彈琴臺人作>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뒤의 版權欄에는 <著作兼/發行者/盧子泳>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의 版權 뒷편 廣告에 縱書로 <長編/小說/廢墟의 울음/彈琴臺人作/十月發行>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廢墟의 울음」의 冊 뒷편 廣告에는 <長篇/創作/廢墟의 울음/春城作/(豫告) 十月發行>이라고 되어 있다.

春城은 白潮 同人으로 詩人이며 小說 隨筆 등도 發表한 盧子泳(1898~1940)의 雅號이다. 한 卷의 冊에 李龍九 彈琴臺人 盧子泳 春城—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作者 또는 著者 表記가 된 것은 語不成說로 주의 깊은 讀者에게는 看過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을 編輯이나 製冊의 失點으로 理解하기도 어렵다. <廢>가 <廢>로 誤植될 수는 있는 일이지만 <彈琴臺人作>이 <春城作>으로 잘못 인쇄된다는 것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盧子泳이 著作權 所有者뿐 아니라 額面 그대로의 著作者 노릇을 하려 한 意圖로 보여지며 그것에 대하여 李無影은 불만을 表示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 李無影이 1932년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의 再版을 다른 出版社인 永昌書館에서 하였다는 사실과 著者는 앞에 彈琴臺人이라고 밝히고 그 뒤 版權欄에 <著作權 所有者兼 發行人/姜義永>이라고 正直하게 記載한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李無影이 「依支할 곳 없는 青春」과 함께 이 作品의 이름을 고친 다음 括弧속에 原名을 밝혀 놓은 점 그리고 그의 雅號와 異名을 밝히는 機會에 이 作品들에 대한 사항을 적어놓고 있는 것은 그의 作임을 分明히 해 두고자 한 努力이라고 해석된다.

<戊甲. 甲龍. 龍三. 龍九. 이것은 어릴 때 집에서 부르던 나의 이름이다. 戊甲은 戊申生이라 하여 돌아가신 祖母님이 지어주셨고 甲龍은 出處도 모르고 龍九은 여덟살에 내가 혼자서 지은 것이다. 雅號로는 十五歲까지는 「淚聲」이라 부르고 스스로 기뻐하였고>⁽¹⁰⁾ <그 뒤 十七歲때던가 申砮將軍의 背水陣으로 有名한 故鄉의 絕勝 彈琴臺를 따서 「彈琴臺人」이라고 지었다. 十九歲때 靑鳥社에서 刊行된 長篇 「依支없는 靈魂」 「廢墟에 울다」는 彈琴臺人으로 되어 있다. 「無影」이란 號를 쓰기 始作한 것이 二十一歲때고 보니 滿 三十年이다. 處女作인 「叛逆者」 「두 訓示」 등은 이 號를 쓴 後의 作이다.>⁽¹¹⁾

이 두 글은 李龍九와 彈琴臺人이 李無影과 同一人이라는 사실과 두 長篇의 作者가 李無影이라는 사실을 確認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 作品의 題目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을 「依支 없

(9) 拙稿: 「『依支할 곳 없는 青春』 「廢墟의 울음」에 대한 考察」, 「檀大新聞」, 1981. 4. 20 p. 5.

(10) 李無影: 「그림자 조차 없는 나」 「東亞日報」, 1934. 4. 1

(11) 李無影: 『無影의 辯』 「東亞日報」, 1957. 4. 4

는 靈魂」으로 「廢墟의 울음」을 「廢墟에 울다」(뒤에 年譜에는 다시 「廢墟」로 고쳤다.)로 고쳐
어 記錄한 것도 意圖인 것으로 보여진다.

4. 李無影의 處女作

(1) 處女作의 要件

處女作이라는 것은 最初의 빛나는 作品 또는 最初의 水準作이라고 規定지을 수 있겠다.

앞에서 紹介한 作品 가운데 「達順의 出家」는 最初의 作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規模나 內容으
로 봐서 貧弱한 面이 없지 않다. 量으로만 꼭 얘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小說의 境遇 적어도 短
篇小說 이상의 外的 規格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內的 思想의 偉力이 상
당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達順의 出家」는 아무래도 그런 水準을 인정하기에는 주저되는 바
가 있다. 그것은 1년 뒤에 出刊된 「依支할 곳 없는 青春」 다시 1년 뒤에 出刊된 「廢墟의 울음」
과 比較가 되어 그런 생각이 더해진다.

그리고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은 前述한 대로 1927년에 出刊을 하였고 「廢墟의 울음」은 1928
년에 出刊되었지만 그 두 冊의 末尾에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은 1927년 3월 21일 「廢墟의 울음」
은 1926년 2월 3일 脫稿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處女作을 云謂할 때는 脫稿보다는 發
表에 基準을 두고 있는 것이 例이다. 崔南善의 경우, 「海에게서 少年에게」보다 「舊作三篇」이
쓴 時期는 앞서지만 發表를 먼저 한 「海에게서…」를 處女作이라고 하고 있다. 勿論 거기에는
作品의 價値도 전혀 排除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點으로 미루어 일단 無影의 處女作을 「依支할 곳 없는 青春」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
다. 여기에는 勿論 두 作品의 價値나 水準에 對한 比較가 前提되야 하겠지만 그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기는 무척 힘들다. 우선 두 作品의 分量이 비슷하다는 것과 먼저 쓴 原稿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出刊한 것은 評價가 加해진 것이라고 보아 일단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을 處女作이
라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밖에 初期의 作品들로 1928년에 童話 「薔薇와 피꼬리의 설음」 「옛장사 이야기」 1929년에
詩 「咀呪」 「봄이 왔다보다만」 「어머니!」 등을 李龍九라는 兒名으로 發表하였고 童詩 「가난뱅
이 엄마」 短篇小說 「錯覺感」 「八年間」 등을 李無影이라는 筆名으로 發表하고 있다.⁽¹²⁾ 그리고
그 얼마 뒤의 일이지만 東亞日報 懸賞 戲曲 當選作인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은 李山이라는 筆
名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李無影이 作成한 年譜들(前述)에 記載된 것과 1년의 차이가 있지만 題
目과 장르 發表機關이 같고 뒤에 李無影이라는 이름으로 發表한 「藝術狂 社員과 五月」⁽¹³⁾에 <(一
名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밝혀 놓은 것으로 봐서 李山과 李無影은 同一人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江南떠난 阿房鳥」外 몇 作品들이 李山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同

(12) 이 밖에 童話 몇 作品들이 發表되어 있다. II.2. 初期 作品 年譜 參照.

(13) 「新東亞」 1935. 10. p. 217~227.

一人임은 아직 確認하지 못하였다.

李無影은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각 장르에 걸쳐 많은 作品을 發表하였다. 그런데 李無影은 스스로 1931년에 發表한 中篇「叛逆者」와 1932년에 發表한 短篇「두 訓示」를 <處女作>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⁴⁾ 그리고 「依支할 곳 없는 青春」과 「廢墟의 울음」을 또 <處女長篇>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¹⁵⁾

이 두 사항으로 보면 前者는 處女作 後者는 最初の 長篇이라는 意味로 解釋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作品이 處女作이나 하는 것이 그렇게 重要한 사항은 아니다. 다만 그 어느 作品에 對한 價値 賦與를 함에 있어서 自他가 認定을 한다는 것이 重要한 것이며 가령 金素月 같은 경우처럼 그의 處女作「진달래꽃」이 그의 代表作이 될 수 있는 劃期的인 作品으로서의 客觀的인 評價가 重要한 것이다.

그런데 李無影은 叙上한 대로 여러 筆名을 사용하였으며 掌篇, 長篇, 短篇, 中篇 등의 小説을 비롯하여 詩, 童詩, 童話, 戲曲 등 多樣하게 發表를 하여 嚴格히 얘기하자면 각 장르別로 處女作을 云謂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理由로 해서 初期—여기서 初期라 함은 作品을 發表하기 始作한 무렵을 말함—에는 處女作으로 認定하고 싶은 뚜렷한 作品이 없었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依支할 곳없는 青春」과 「廢墟의 울음」을 「依支없는 靈魂」 「廢墟」로 改題를 하고 括弧 속에 原名을 밝혀 둔 것은 作者를 分明히 해 두고자 한 意圖 外에 內容과의 附合 感傷性的 排除 그리고 作品題目으로서의 格調를 갖고자 한 努力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뒤 그렇게 다시 出版을 하려했던 것 같으나 그런 題目的 冊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實現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어떻든 이러한 努力은 이 두 長篇에 對한 未洽함에서 出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處女長篇보다 5년 또는 6년 뒤에 發表한 「叛逆者」「두 訓示」를 處女作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두 小説 以前의 作品들은 全部 習作으로 돌리려는 意志이다. 作者 表記까지 다른 立場이고 보면 自然스러운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處女作을 또 들쭉 지적한 自體가 어느 하나에 對한 確固한 價値賦與를 하지 않은 것이며 그러나 그것을 額面 그대로 認定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령 30년이나 時日이 經過한 뒤에 作者 스스로의 自作評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作品을 次位에 두고 싶든가 하는 것은 作家의 意思일뿐 作品은 作品 自體로 讀者에 依해 評價되어지는 것이다.

李無影은 初期에 여러 筆名으로 여러 장르에 걸친 作品을 선bio이므로 해서 뚜렷한 處女作으

(14) 李無影:『無影의 辯』「東亞日報」, 1957. 4. 4

(15) 李無影:『韓國文學全集10』(民衆書館), 年譜 p.1.

이 年譜는 正確하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다. 가령 「依支할 곳 없는 青春」과 「廢墟의 울음」의 發表 年도가 같이 192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으며 두 長篇의 原名을 「依支없는 青春」「廢墟의 울음」이라고 쓴 것도 正確하지 않다. 그러나 前述한 대로 李無影이 生存하여 있을 때 가장 늦게 나온 文學全集의 年譜라는 點과 그것을 李無影이 作成하였다는 點으로 意義가 있는 資料이다.

로서 浮刻된 것이 없다. 굳이 이러한 規定을 지을 必要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意見을 모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2) 「依支할 곳 없는 青春」 또는 「依支 없는 靈魂」과 「廢墟의 울음」 또는 「廢墟」說

李無影은 이 두 作品을 處女長篇이라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作品 年譜의 제일 앞에 나란히 올려 놓고 있으며 그 다음에 「叛逆者」「두 訓示」「아내」로 연결시키고 있다⁽¹⁶⁾는 점, 또 두 長篇을 前後한 初期의 作品들을 다 빼놓고 있다는 것은 「叛逆者」以前의 가장 뚜렷한 作品으로서의 認定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을 再版까지 하였다는 것은 作者 스스로 이 作品에 대해 習作으로만 認定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볼 때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은 最初에 出版된 長篇小說이라는 點에서 그리고 「廢墟의 울음」은 最初로 쓴 長篇小說이라는 點에서 李無影의 處女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2) 「叛逆者」와 「두 訓示」說

이것은 李無影이라는 筆名 雅號를 確定하고—그 뒤 그 이름을 一貫하였으며 1959년에는 淸州 地方法院의 허가를 받아 李甲龍을 李無影으로 改名하였다.⁽¹⁷⁾—이 이름으로 發表한 것 중 初期의 力作 中篇과 短篇을 스스로 擇한 것이며 李無影이 새로운 覺悟로 文壇 進出을 試圖한 作品⁽¹⁸⁾이라는 點에서 處女作으로서 說得力을 갖는다.

(3) 「依支할 곳 없는 青春」「叛逆者」「두 訓示」說

中篇에서 「叛逆者」短篇에서 「두 訓示」를 處女作으로 보는 것과 같이 長篇에서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을 處女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廢墟의 울음」은 出版이 뒤에 되기도 했지만 出版社에서 뒤로 밀어둔 點, 再版을 하지 않은 點으로 次位에 두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던 戲曲에서 우리나라 最初로 懸賞募集 當選作인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을 處女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詩 童話 童詩 등에서도 處女作을 云謂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뚜렷한 處女作으로서의 認識을 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 장르의 作品을 같은 時期에 發表하였을 경우 그렇게 細分해서 論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1)(2)(3) 어느 것이나 最初의 빛나는 作品으로서의 水準이 認定되어야 한다는 前提가 따르는 것은 勿論이다.

이에 對하여 뒤에서 考察함으로 그 價値 규명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 「依支할 곳 없는 青春」「廢墟의 울음」을 李無影의 處女作으로 「叛逆者」「두 訓示」를 李無影의 出世作으로 보는 筆者 나름대로의 結論을 먼저 내려보고 싶다.

(16) Ibid., 年譜 p.1~2.

(17) 忠淸北道 中原郡 新尼面 발령 호적등본에 다음과 같이 記載되어 있다.

西紀 壹九五九年 四月 四日 淸州地方法院 忠州支院의 許可의 裁判으로 因하여 그 名 甲龍을 無影으로 改名申告 同月 拾日 受附

(18) 李無影: op. cit., 年譜 p.2.

李無影은 <2면이나 되는 長篇을 出版하였으므로 作家가 된 줄 알았으나 一切 反應이 없어 悲觀하고는 小學敎員 出版社 雜誌社로 轉轉하며 새로 文壇 進出을 꿈> 꾸었다고 述續하고 있다.

Ⅲ. 無依支와 廢墟에의 關魂

1. 初期作品의 構造

여기서는 李 無影의 初期作 中에서도 初頭に 해당되는 「達順의 出家」「依支할 곳 없는 青春」「廢墟의 울음」이 세 作品의 展開와 表現 등의 構造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이 세 作品은 다 같이 日本에서 써 보냈다고 하는 共通된 作品 背景의 特性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李無影의 最初의 作品 思想을 담고 있다는 意義도 지니고 있다.

(1) 「達順의 出家」, 그 支配와 束縛에서의 虛荒한 脫出

達順은 淸州에서 女學校를 卒業하고 올라와 漢陽 × 參判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도 시장에서 고기와 계란 과일 등을 잔뜩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月給으로 너무 고달픈 일들에 싸여 아무 낙과 希望이 없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中門까지 왔다가 마당에 물건을 메어부치고 집을 나온다. 매일 지쳐 견딜 수 없는 일과에 걸핏하면 무서운 마님의 호령과 매가 떨어지는 지옥 같은 생활에서 탈출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銀行 사무원인 남자 친구와 日本 留學의 길을 떠난다. 使喚의 位置에서 어떻게 留學길이 可能했을까, 무척 浪漫的인 이야기면서도 또 무척 虛荒한 느낌이 들고, 또 <前의 自己비들의 한 일 어린 達順을 괴롭게 한 일을 後悔>한다고 끝을 맺고 있는 結尾法이 陳腐한 느낌을 주지만 3번이나 視點을 바꾸고 창수어머니의 目擊談, 편지의 형식, 後日譚 형식등 짧은 紙面에 多樣한 效果를 살려 壓縮된 構成을 하였으며 比較的 斬新한 文章의 驅使로 貧과 富, 束縛과 解放, 支配와 自由에의 갈등을 겪던 時代相을 如實히 느끼게 해주고 있다.

(2) 「依支할 곳 없는 青春」, 그 孤獨한 靈魂의 몸부림

<눈물이 있는 사람은 살은 사람이다. 었던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말아버렸다 함은 즉 그 사람이 송장내지 산송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짙막한 머릿말은 글의 悲壯한 내용을 暗示하고 있다.

그길 줄 모르는 비가 지리하게 내리고, 濕氣찬 陰鬱한 방안에 主人公 安起源은 飢餓와 惡寒에 떨고 있다.

小説을 쓰겠다는 그는 시골(忠州)에서 京城으로 <참다운 삶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위하여>올라온 것이지만 결국 은행 사무원이라는 生活人 이상 아무 것도 아니었고 계속 밀려닥치는 고통과 憎惡 그리고 孤獨과 幻滅의 수렁 속을 헤매며 <『오 의지할 곳 없는 청춘아……』> 그렇게 부르짖으며 苦悶과 悲哀에 빠진다.

사랑하던 N順은 陰城의 손꼽히는 財産家와 맘에 없는 시집을 갖지만 자살을 하고 有夫女 敬子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이를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을 못 이겨 出家한다.

은행 重役 趙熙明의 아들, 肺病에 걸린 봉수의 生의 絶望과 불타는 嫉妬 그리고 애타는 죽음 千萬長者이며 「幸福의 아침」으로 特選을 한 畫家 吳壽泳의 獵色行脚, 그는 친구인 봉수의 여동생 19세의 학생인 貞順을 犯하고 죽어가는 봉수의 美貌의 聲樂家 아내 惠淑에게까지 魔手を 뻗친다.

이룰 수 없었던 N順이나 敬子에게는 물론 성급하게 接近하는 潑刺한 恩順에게도 사랑을 쏟을 수 없는 <참다운 삶>의 理想家 起源은 결국 貞順의 復讐의 六穴砲로부터 조선의 자랑인 미술가 壽泳을 救하기 위하여 無名 作家인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다가 결국 貞順만 죽이고 자신은 잔뜩 誤解만 뒤집어 쓰고 마는 感傷劇을 벌이게 된다.

새 삶을 위해 발버둥치는 起源은 부르조아 思想을 품고 있는 壽泳까지 包容하는 理解와 同情을 가지고 情慾과 物慾을 倫理와 道德으로 超越하려는 意志, 神과 運命論과 우리 古詩 소편하 우웰 메테블링크 입센 등의 東西洋 思想을 다 동원하여 새 삶의 意志를 實現해 보려고 하지만 그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으며 자신의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의 悲哀와 靈魂의 孤獨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19世紀 國語表記法에 依한 간간이 洗練되지 못한 文章, 그리고 여러 思想家 文豪들의 消化가 덜 된 引用과 지나치리만치 感傷的인 理想의 挫折과 사랑과 同情의 混迷, 또 곳곳에 昇華되지 않은 情慾의 처리, 前近代의인 사랑의 復讐, 그리고 아직 定立되지 않은 思想들의 虛點들을 指摘할 수 있으나 章마다 視點을 바꾸어 1920年代의 狀況을 代表하는 人物들을 登場시키고 挫折된 사랑의 悲哀, 凄絶한 죽음의 絶望, 달콤한 生의 享有, 그리고 自決과 苦悶로 成就하는 슬픈 사랑의 眞實, 새 삶 追求의 孤獨한 몸부림을 펼쳐 보이고 있다.

그것은 綿密한 構成과 誠實한 描寫 生動感있는 言語의 驅使로 可能했던 것이다.

(3) 「癡墟의 울음」, 그 絶望의 生의 意味

시골 도시인 C주(忠州로 생각된다)가 舞臺로 되어 있다. 군청의 계원으로 전락한 洪參奉의 딸, C주여자고등보통학교 5학년 현순은 오빠 洛三의 친구인 苦學하는 文洙 財產家인 康浩 그리고 好色家인 일선 이렇게 四角관계의 복잡한 사랑의 갈등 속에서 일단 빈털털이 東京留學志 望生 文洙를 택하여 열렬히 사랑하고 그의 아이까지 가진다. 그러나 공금 횡령을 한 아버지를 투옥과 자살에서 구하기 위하여 康浩의 1千圓짜리 切手와 사랑을 바꾼다.

<『저는 불쌍한 희생자이다. 저를 더러운 여자라 하지 말고 동정할만한 여자 가련한 희생자라고 생각해 주옵소서...』>⁽¹⁹⁾ 이런 편지를 남기고 그녀는 강호와 만주로 떠난다. 그러나 <소극덕 원인은 「부모를 위하여」라는 변명으로 통용될지 몰으나 그 덕극덕 원인은 그것치 쓰거운 열정과 말못할 호기심으로 열망하던 것——을 얻었다는 데 잇을 것이다.>⁽²⁰⁾

現社會에 대한 많은 不平과 反抗을 품고 있는 洛三은 小學敎員을 免職당하고 文學作品들을

(19) 李無影: 「癡墟의 울음」(靑鳥社, 1927) p.272.

(20) Ibid., p.273.

읽고 쓰고 하다가 人力車를 끌어 번 돈으로 勞動夜學을 經營하며 조선말을 가르쳐 조선사람 노릇을 시키려고 心血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는 기구하게도 百萬長者 일선의 約婚者이며 그가 熱情的으로 사랑하던 良順을 유원지로 태워가지고 가다가 殘弱한 健康과 精神의인 자극을 받아 卒倒, 절벽 밑으로 墜落한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지만 곧 숨을 거두고 良心의 가책을 받은 良順은 또 그의 무덤 옆에서 自決, 온통 山川은 울음바다가 된다.

〈『언제까지든지 울어라. 울고 울고 울기 실을 썰까지 더 울 수가 업슬만큼 지칠새까지...』〉⁽²¹⁾

그리하여 이 冊의 豫告 廣告에 키치프레이스로 썼듯이 〈荒廢한 朝鮮 땅을 울니는/젊은이의 설움과 눈물!〉⁽²²⁾ 〈젊은이의 애타는 새빨간 魂의 울음!〉⁽²³⁾으로 山川을 뒤덮는다.

文洙는 「낙삼의 죽음을 앓김」이라는 追憶文을 모신문지상에 발표하였다가 文句가 不穩하다고 철폐되었고 文洙의 방에는 그를 닮은, 낳은지 1주일쯤 되는 男兒의 사진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의 출옥을 기다리고 있겠다.〉⁽²⁴⁾

여기에서도 「依支할 곳 없는 青春」에서와 같은 表現上의 問題點들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感傷의이고 說教의인 面을 더 追加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또 이 作品이 먼저 쓰여졌다고 되어 있지만 現實에 대한 意識이라든지 愛情의 論理같은 것은 훨씬 迫眞感 있게 表現되어 있다. 그런 點에서 「依支할 곳 없는 青春」과 優劣을 가리기는 무척 힘들것 같다.

어떻든 이 作品에서는 착하지만 약한 현순의 사랑의 道程이나 康浩가 追求하는 青春의 理想 같은 것보다 憂鬱性 人物 洛三의 民族主義的인 사상의 實踐과 挫折, 그리고 그런 現實에 對한 反抗으로 投獄되었다 나오는 文洙의 사랑의 敗北, 그리고 이 끝에서부터 始作되는 絕望的 生의 意味가 切實한 感動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 初期作品의 思想 또는 生意識

(1) 支配者 가진 者에 對한 抵抗

「達順의 出家」는 바로 支配者 가진 者에 對한 抗辯이요, 그런 狀況으로부터의 脫出이다.

〈達順은 사나운 메에 몸시 마저 느러진 듯한 팔다리를 겨오 움지기어 每日과 갖치 왼(左)손에 고기과 싸위를 들고 오른(右)손에는 계란 사과 껍들의 果實을 들고 그것도 不足하여 通帳은 풀이 좀 시여 보이는 廣木저고리 스고름에 걸고〉⁽²⁵⁾ ×參判의 富裕한 생활의 뒤치다꺼리, 이런 것을 사 가 봐야 한 번 먹어도 못 보고, 조금 늦으면 마님의 〈雷聲같은 呼命스소리가〉 떨어지고... 이런 가진 者로부터의 束縛과 虐待로부터 〈地獄에서 빠져 나온 듯한〉 순간을 포착하여 參判의

(21) Ibid., p.238.

(22) 李無影: 「依支할 곳 없는 青春」(靑鳥社, 1926) 版權 뒷편

(23) 李無影: 「廢墟의 울음」 op. cit 版權 뒷편

(24) Ibid., p.274.

(25) 李無影: 「達順의 出家」(「朝鮮文壇」) p.416.

집을 나온다. 여기서 X參判의 家와 達順은 勞使의 關係가 아니라 主從의 關係로 나타나며 단순한 부립과 시킴에 대한 不滿이라기 보다 시골사람이 都市人에 대한 違和感이며 갖지 못한 者가 가진 者에 대한 敵對感이며 支配者에 대한 억눌림의 反撥인 것이다. 達順의 家出은 이런 制度的인 矛盾에 대한 抗辯이며 留學을 떠나는 안간힘 痛快感으로 그런 現實을 治癒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意識은 「依支할 곳 없는 靑春」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安起源의 입을 통하여 痛烈하게 튀어나온다.

『나가거라! 나가! 이 방에는 돈 업서 굴머죽는 놈이 잇는 방이다. 너 갖치 비단 옷에 금시계에 기생만 열헤끼고 단기는 놈은... 나가거라!』⁽²⁶⁾

銀行 重役의 아들 봉수에게 악을 쓰며 살기를 품고 목침을 던진 것이었다.

그리고 鳳秀를 폐병으로 죽게 하고 千萬長者의 독자 壽泳이 獵色行脚으로 被殺直前까지 끌고 가는 人物設定 그리고 「廢墟의 울음」에서 財産家인 康浩의 愛情逃避行, 역시 百萬長者인 일선의 約婚女の 죽음등의 構成은 다 有産者들에 對한 憎惡의 意識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나 안보나 뱃대기가 썩스한 놈이겠지!』⁽²⁷⁾

『왜야지 갖튼놈들! 남은 하루에 밥 한끼도 못 먹는데 비단옷을 천사 감고 양로리만 쳐먹고...항아리 갖치살만썰라! 죽일놈덜...』⁽²⁸⁾

起源은 이렇게 <턱 없는 憎惡>⁽²⁹⁾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達順 安起源 N順 현순 洛三 文洙等 肯定의 人物들은 다 가난하고 <「무산자(無産者)」냄새가 나고>⁽³⁰⁾ 迫害를 받고 굶주리고 金力에 依해 悲劇의 生을 견게 되고 또 宿命的 悲運이 덮여워진다. 그러나 小說의 生의 빛은 그들 쪽으로 照明되고 있다.

(2) 새 삶, 참다운 삶의 追求

『새로운 삶이다. 참다운 삶이다!』⁽³¹⁾

「依支할 곳 없는 靑春」의 安起源은 이렇게 입을 악물고 決心을 한다. 그는 시골에서 이 새 삶의 追求를 爲하여 漢陽으로 온 것이며 은행 사무원으로 있으면서 小說을 쓰려는 그는 항상 이 참다운 삶의 규명과 실현을 위한 고민을 하여 왔다. 그런데 <한 사람의 개성(個性)이나 주의, 사상(主義思想) 갖튼 것은 단초겨우는 것과 갖툼으로 그 주의 사상의 한 모퉁이가 변하고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人生觀)이나 도덕관 남녀관 민족관 세계관까지 전부 변하여 바림과 갖치 그의 인생관에 파멸이 오자 그의 감정까지 일시에 격변하고 말았다.>⁽³²⁾

(26) 李無影: 「依支할 곳 없는 靑春」 op. cit, p.55.

(27) Ibid., p.36.

(28) Ibid., p.37.

(29) Loc. cit.

(30) Ibid., p.21.

(31) Ibid., p.14.

(32) Ibid., p.155.

지금까지의 그는 항상 자기가 갈망하고 동경(憧憬)하여 오든 「참다운 삶」이란 것이 다만 한가지 물질상(物質上) 고통을 면하기만 하면 저절로 그러한 생활들이 현실화(現實化)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돈! 돈! 그것만 잇스면 삶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형락(享樂)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물질상 고통을 버서나는 것이 즉 「새로운 삶」과 「참다운 삶」이 시작되는 초보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의게는 그것이 진리(眞理)였든 것이다. 그리고 보면 벗의 힘으로 그것이 실현된 오늘날에는 아모 고민도 업서야만 할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의게는 이전의 괴원보다도 몇 배나 괴로운 순간이 계속되었다.⁽³³⁾

은행원으로 취직이 된 그는 물질로서의 해방이 된 셈이지만 그의 고민은 계속 加重되는 것이었다. 悲哀와 눈물 苦痛, 아픔, 絕望 그리고 다시 울음 아픔 絕望 죽음...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 내가 고민한 것도 슬퍼한 것도 그리고 물질에의 해방이 잇은 후에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 것도 아모 달은 의미가 잇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인생」(人生)이닛가 괴로웠고 인생이닛가 슬펐다. 다만 그 뿐이다. 그것이 「인생」이라면...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하르 죽 한꺼도 못 먹고 호병(胡餅)한 개 못 먹던 이전의 나이거나 쪼는 밥 잇고 옷 잇고 집 잇는 지금에 나이거나 교구마장사거나 군밤장사거나 고기장사거나 마차군이거나 인력거(人力車)군이거나 그뿐만 아니다. 은행소 서기나리거나 순사나리거나 졸 놓히 올라가서 학자거나 대장쟁이거나 양반이거나 상한 것이거나 그것이 인생인 이상에는 반듯이 그에 상당한 비애와 고통이 잇는 것이다. 인생이면 의례히 고민하여야만 되고 고민하는 것이라면 반듯이 인생이라야 되는 것이다.⁽³⁴⁾

安起源은 이렇게 깨달았다. 첫사랑 N順과는 金力에 依해 挫折되고 有夫女인 敬子와는 倫理意識 乃至 社會的 觀念에 依해 遮斷되고 美貌와 肉體美를 소유한 恩順과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지 않는 사랑으로 하여 自制되고 親友인 鳳秀는 죽음으로 壽泳은 墮落으로 氷壁이 생기고 그리하여 結局作品을 쓰려던 意志도 彷徨을 하고 잇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절한 自己苦悶은 한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인생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민과 비애가 꺾치는——꺾었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의식치 못하게 되는 최후의 막(最後의 幕)이다. 최후의 일선(一線)이다. 최후의 일순간인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비애와 고통이 꺾이는 최후의 막이라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나?』⁽³⁵⁾

그러면 安起源은 <『이 세계는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없다』 『현세계에는 쾌락이라는 것이 없다. 소위 그 쾌락이라는 것은 고통이 잠깐 쉬인 아주 형용할 수도 없을 만큼 짧은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기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불티어나 쇼펜하우웰 같은 사람말을 引用하기도 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슬퍼하니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라고 한 메테링크의 말을 引用하며 <이 세상의 「삶」은 자살자들의 눈에 비친 것보다도 더 의미 깊은 무엇이 잇는 게 확실하다. 그것이 무엇이든가? 사랑이든가 명예이든가 그러치도 안타면 돈이든가?...>⁽³⁶⁾

(33) Ibid., p.156.

(34) Ibid., p.156~157.

(35) Ibid., p.156.

(36) Ibid., p.163.

이렇게 <문데만 죽 늘어눅고 한 가지도 해결을 맥(땀:筆者)지 못한 그는 아조 절망의 함정에 빠져>⁽³⁷⁾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다시 되풀이 해 苦悶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한 일이라곤 또 무엇인가?

그는 貞順의 復讐의 六穴砲 앞에 誤解와 陋各을 잔뜩 뒤집어 쓰고 印象畫家 壽泳을 救하므로써 <도선 미술계(美術界)나 도선민족에게 대하여 죄악>⁽³⁸⁾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을 좀 써서니컬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하나의 癡情殺人劇을 沮止하였을 뿐 아니라 부르조아 사상에 젖어 있으며 快樂主義者인 이땅의 代表的 藝術家를 自處한 壽泳에게 참 人間의 威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이것은 主人公 起源을 통하여 提示하려는 세 삶 참다운 삶을 爲해 몸부림치고 苦悶을 하나의 實習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廢墟의 울음」에서 洛三의 現實 解決을 爲해 渾身の 힘을 다하면서 <『죽어도 좋다! 너는 참다히 살었스닛가...』>⁽³⁹⁾ 이렇게 참 삶을 목숨보다 重히 여기는 生意識은 한 個人의 意志를 넘어서 民族과 國家를 향한 信念으로 連結되고 있다.

(3) 民族主義 同胞文學에의 思想과 實踐

「依支할 곳 없는 靑春」의 참다운 삶의 模型을 「廢墟의 울음」에서는 보다 現實的인 狀況에 代入시킨다.

<『...과연 나는 우리 사활문데라든가 우리의 현재와 장래에 대하여 만흔 고민을 하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잠꼬대 뿐이다. 그것은 아모 효과도 내지 못한다. —나는 이 진리를 물었고 왔다...』>⁽⁴⁰⁾

이 小說의 行動派 主人公인 洛三은 그렇게 自白을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行動綱領을 吐露한다.

『나는 적어도 민족과 동포를 위하여 참된 일을 하라는 나는 공연히 비판하거나 눈물을 싸고, 공상거리거나 하는 것보다 그들을 이 진흙구덩이에서 구하라면 실제 사업 방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당한 일이라고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요 참다운 일이다. / 나는 잘 안다. 일전의 회식날 그 유모⁽⁴¹⁾를 위하여 탄식을 하거나 눈물을 뿌려여 주는이보다 「야—이 싸뜻한 밥을 먹으시오. 그리고 이 돈으로 어른 아해를 길너 가시오」하는 것이 얼마나 힘잇고 얼마나 참다운지를 나는 잘 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업서 복간도로 가는 동포를 붓들고 「참 가엾은 일ियो.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요.」하는이보다 「자—동포여 그갓치 사람차고 마담찬 복간도로 가지말고 이것으로 먹고 이것으로 입으시오.」하는 것이 그 얼마나

(37) Loc. cit.

(38) Ibid., p.217.

(39) 李無影: 「廢墟의 울음」 p.142.

(40) Ibid., p.80.

(41) Ibid., p.64~73.

康浩의 집에서 文殊 洛三이 忘年會를 하던 날 日本人에게 봉변을 당하던 젊은 조선 부인, 남편은 땅을 메이고 복간도로 가고 연명을 하기 위해 자기 아이는 남의 집에 맡긴 후 乳母로 들어갔는데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이유로 도적으로 불러 鬻을 얻어맞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乳房이 有罪라고 하여 손톱으로 뜯고 비틀어 곱은 선지피가 분수같이 뿜쳐었다.

힘이 있스랴. 그 얼마나 참다우랴?…』⁽⁴²⁾

그리고 洛三은 自身이 너무 敏捷하고 銳敏한 나머지 現實을 悲觀的으로만 생각을 하였던 것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是認하였다.

『…나는 공연히 나의 가명이나 나의 민족이 멸망하는 것으로만 밋고 자포심을 일으키어 비관만 하고 염세스증을 이르기어서는 자살을 꿈꾸었다. 사실 그것들이 점々 타락되고 멸망되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극에는 새로운 빛 석광(曙光)이 광명(光明)의 빛이 흰히 비취고 있다. 스물하계 흐렷든 하늘에는 해빛이 비취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빛이 우리를 위한 생명수(生命水)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무슨 살인광선(殺人光線)이나 대(되:筆者)는 듯이 무서워 하여 왔다…』⁽⁴³⁾

이러한 무척 肯定的인 思考는 洛三이 厭世症, 憂鬱症에서 벗어나 現實 狀況 속으로 뛰어들어 行動과 實績으로 解決하려는 계기가 되고 있다. 現實에 對한 不平과 反抗으로 小學敎員을 免職 當한 그는 人力車군의 勞動, 그리고 收入으로 夜學을 經營하며 굶주린 사랑과 배움을 채워 주고 있다. 그는 칠판에 ㄱㄴㅇ르를 써 놓고는 『도선 말을 물으는 사람이 도선 사람이 아닌 것과 갖치 이 국문을 물으는 사람도 도선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도 도선 사람 노릇을 하라거든 빨리 이것을 배우시다』⁽⁴⁴⁾ 이렇게 얘기하고 발음연습을 시켰다. 그는 <차되찬 비바람에 시달려 가면서 해 뜰 새부터 황혼까지 격렬한 로동을 하고 그리고도 부족하여 밥 한술 썩 썩 먹으면 그 기진한 다리를 질질 물어서 학교시간을 대어간다. 그리하여 집에 돌아와 자는 것은 일으면 열한시 느리면 열두시다.』⁽⁴⁵⁾ 그리고 그는 지치지 않고 『이 젊음이 시들 새까지 나의 피가 식을 새까지』⁽⁴⁶⁾ 몸을 바칠 작오를 하며 『나의 젊음은 도선을 위해서서 젊음이었고 나의 뜨거운 피는 도선을 위해서서 뜨거운 피였다.』⁽⁴⁷⁾고 다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꼭 <도선을 위해서>라고는 볼 수 없지만 人力車를 끌고가다가 卒倒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의 죽음은 良順을 따라 죽게 하고 文洙가 投獄되게 하고 또 그로하여 현순이 康浩와 逃避를 하는 結果를 낳게 하였지만 그는 <피가 식을새까지>⁽⁴⁸⁾ 最善을 다한 것이며 그러한 悲劇의 狀況은 그가 實現하려던 意志를 더욱 切實하게 傳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洛三은 朝鮮文學에 對해서도 透徹한 信念을 表明하여 이땅의 文學의 座標를 提示하고 있다.

『……지금 갖흔 문학——공연히 것치레만 번드를 하게 채리고는 그 목덕의식 계급문학이니 무어니 해가지고 썩드는 것보다 정스당스하게 「도선문학」을 진설하여 주게. 물론 공산문학도 좃코 사회주의 문학

(42) Ibid., p.80~81.

(43) Ibid., p.106~107.

(44) Ibid., p.113~114.

(45) Ibid., p.141.

(46) Ibid., p.142.

(47) Ibid., p.142.

(48) Loc. cit.

도 좇타.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진한 「도선문학」을 일으키어야 한다. 도선문학을……. 우리 독자는——물론 나는 문학 청년이 아니다만은——기생노리 술타령 갖든 것에 지쳤다. 자유 연애의 고창이나 계급해방의 절규에도 우리는 지쳤다. 염증이 생겼다. 도선을 위한 문학 동포를 위한 문학을 일으켰(켜:筆者)다 오…… 참다운 새 도선을 건설할만한 문학……』⁽⁴⁹⁾

洛三은 文學青年이 아니었지만 한다는 文學青年보다 훌륭한 文學思想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슨 學者나 思想家도 아니었지만 짧은 生涯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實現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民族魂을 지키려고 한 信念과 意志였으며 그것이 感動의 水脈을 끌어다주고 있는 것이다.

(4) 歷史的 生意識

① 農村에의 意志

이 세 小說의 主人公들은 다 시골사람으로 되어 있다. 「達順의 出家」의 達順은 淸州에서 올라온 처녀이고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의 安起源은 忠州에서 온 青年이다. 그리고 「廢墟의 울음」의 舞臺는 作品의 여러 地名과 거리 등으로 미루어 忠州라고 생각되는 C州이다.

요즈음이야 사정이 그렇지 않지만 이 作品의 背景이 되는 時期는 淸州 忠州는 鄉土的인 고창이었다. 그리고 女主人公들 N順 현순이 시골에 살고 敬子が 都市를 떠나 入山을 하였으며 山川이 떠나가도록 울어대는 〈廢墟의 울음〉의 空間이 들이며 山이다.

〈어데서인지 광목을 찢는듯한 어린애의 목소리가 조금씩 악을 썼다〉⁽⁵⁰⁾

〈정말 상여소리 갖든 모기소리가 바로 그들 귀에서 솟히 울고 있었다.〉⁽⁵¹⁾

이런 표현들은 都市의 音聲이 아니며 『한달 전까지 저의 남편은 손바닥만한 남의 쌍을 어디 붓치다가 쌍세니 집세니 구실이니 무엇이니 하다가 그나마도 썩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북간도로 돈버리를 갖습니다. 갈채는 좁쌀을 붓치느니 감자를 보내느니 하더니 웬 일인지 썩난 후로는 편지 한장 소식이 없습니다.……』⁽⁵²⁾

〈『나날이 경제궤박으로 몰려가는 동포들을 보고 자네는 선우슴만 치고 자유연애와 연애의 신성을 부르지즌 것 바게 무엇이 있나? 거지갓치 누덕이를 걸치고 피나리 보스집만을 의지하여 북간도로 일본 대판(大阪)으로 가는 동포들이 타는 기차를……』⁽⁵³⁾

이런 農村의 현실을 摘出한 것은 李無影이 단순히 시골(忠北 陰城) 出身이어서라기보다 農村에의 關心과 農民意識 農村에의 意志가 깊이 潛在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② 無政府主義 社會主義 自由主義 浪漫主義 厭世主義의 구름

(49) Ibid., p. 81~82.

(50) 李無影: 「依支할 곳 없는 青春」 p. 20.

(51) Ibid., p. 32.

(52) 李無影: 「廢墟의 울음」 p. 69.

(53) Ibid., p. 21.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의 洛三, 文洙의 젊은 思考와 行動은 그것이 民族主義的이요, 愛國의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同時에 社會에 對한 不平과 抵抗, 免職, 入獄 등을 끌고 온 背景등은 自覺으로 整理가 되긴 하지만 無政府主義 社會主義 自由主義 그리고 浪漫主義 厭世主義 등의 樣相을 보이고 있다. 그것에 對하여 저장하게 主義니 이즘이니 云謂할 根據는 희박하지만 그런 霧圍氣가 먹구름처럼 두껍게 드리우고 있다.

〈상해로부터 ○○운동자 세명이 경성 방면으로 침입한 자취〉⁽⁵⁴⁾, 同胞文學 提唱의 背景 등이 그렇고, 父母의 사랑을 떠나 〈동모〉 〈이성〉에로 向하여 〈인생은 자유다〉라고 父母를 반박하는 〈작은 반역아(叛逆兒)의 무리〉⁽⁵⁵⁾에서부터 出家를 하고 自殺을 하고 愛情의 逃避를 하는 道程들은 꼭 이 小說들에만 局限된 경우는 아니지만 두드러진 現實意識의 樣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③ 사랑, 그 狀況안의 論理

達順, N順, 敬子, 貞順, 현순, 良順……이 小說들의 女主人公들은 다 죽음이 아니면 逃避로 사랑을 成就하거나 拋棄하거나 아니면 變質시키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 安起源을 두고 마음에 없는 政略 結婚을 한 N順은 自決로 成就를 하려 하며 敬子は 入山을 하여 忘却으로 사랑의 불을 끄려 한다. 貞順은 너무나 큰 悲哀를 가누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목숨을 支拂하지만 그것은 純潔과 사랑의 眞實을 지키려는 決鬪이며 良順도 現實로 이를 수 없었던 洛三과의 사랑을 죽음으로 接近 乃至 克服하려 하고 있다. 현순은 愛情의 逃避로 어느 女主人公들보다 現實的인 幸福을 擇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好奇心과 純粹한 文洙와의 사랑과를 交換, 愛情의 變質을 안고 역시 滿州로 北京으로 逃走를 하고 있는 것이다.

達順의 경우는 愛情에 焦點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긴 하지만 도대체 어떤 사랑의 選擇이 가장 幸福한 것일 수 있었는가?

그런 答을 한 마디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特히 悲劇의 사랑의 眞實로 生의 意味와 方法을 提示하고자 한 小說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것은 男子 主人公 安起源, 洛三 文洙의 쪽에서 追跡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름든 無依支와 廢墟, 이 荒漠한 狀況에 그것이 異性間의 사랑이든 社會나 民族에의 사랑이든 그 積極的이고 熱情的인 鬪魂으로 狀況안의 存在가 되며 깨어 사는 歷史的 存在者로서의 生意識을 獲得하게 되는 것이다.

(54) 李無影: 「依支할 곳 없는 青春」 p. 66.

(55) 李無影: 「廢墟의 울음」 p. 116.

IV. 結語 · 李無影 初期 思想의 意義와 發展

李無影의 初期 作品중 그 初頭 部分에 對한 言及을 斷片的으로 해보았다. 初期 作品들의 年譜에 밝힌대로 作品으로서의 規格을 갖추어 投稿하기 始作하고서부터 文壇의 確固한 認定을 받기까지 상당한 努力을 하였다. 作品의 數도 많지만 多樣한 장르로 대단히 重量있는 作品을 계속 發表하였다.

그것은 文壇의 現實, 文學의 生理가 그렇듯 冷嚴한 것이기도 했지만 發表의 方法에도 問題가 있었던 것 같다. 李無影은 李龍九라는 兒名에서부터 彈琴臺人 李山 李無影이라는 여러 筆各을 여러 장르의 作品에 혹은 앞에 또는 뒤에 使用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作家나 作品 장르에 集中的인 선보임이 되지 못하여 뚜렷한 處女作으로서의 焦點이 흐려진 것이다. 그리고 初期의 두 長篇 「依支할 곳 없는 青春」과 「廢墟의 울음」이 그 規模로 보나 作品의 思想, 文體 등의 構造로 보나 상당한 水準에 達해 있음에도 不拘하고 羅稻香의 「幻戲」의 경우처럼 李無影의 出世作으로 評價를 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作品 自體만의 問題가 아니었던 것 같다. 한 作品의 評價는 即時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評價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 두 長篇은 처음에 一時的으로 시험한 筆名을 使用하였고 著作權에 관한 問題등 몇 가지 사정으로 著者名 뿐 아니라 作品名도 고쳤다. 作品이 뛰어남엔 作者가 없고 題目이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評價를 받게 되고 길이 傳하여 남는다고는 하지만 叙上한 것과 같은 理由로 切版된 후 그 作品 보존이 잘 되어 있지 않고⁵⁶⁾ 李無影 自身이 作成한 年譜에 題目만 두 개씩이나 올라 있을 뿐 內容에 대하여는 전혀 言及되지 않고 論議되지 않아 잊혀지고 消滅되어 갈 것 같아 그 評價資料가 되었으면 한다.

이 作品에 대한 書誌로 李無影의 作品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상당한 水準作으로 認定되어 이 두 長篇을 <李無影의 處女作>이라고 의견을 제시해본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論據가 세워지면 대부분의 자료(辭典, 題材便覽, 文獻 등)에 빠져 있으며 전혀 論議되지 않은 이 두 長篇은 1920年代 後半의 아직 零星한 長篇分野에 한 畫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李無影의 初期 作品의 主題를 이루는 意識과 思想의 構造는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達順의 出家」에서 支配와 束縛에서의 脫出의 意志를 보여주고 있다. 가진 者 부리는 者에 대한 抵抗을 통한 自覺, 그것이 대단히 虛荒된 대로 李無影의 最初의 文學思想이었던 것이다. 「依支할 곳 없는 青春」에서 브르쥬아에 대한 起源의 憎惡, 「廢墟의 울음」의 洛三 文洙의 悲劇

(56) 筆者는 이 著書를 오랜 求索끝에 書誌學者 河東鎭 教授의 書架에서 「依支할 곳 없는 青春」을, 高大圖書館에서 「廢墟의 울음」을 복사하여 볼 수 있었음을 밝힌다.

과 苦杯도 이런 관계의 表出이다.

「依支할 곳 없는 青春」에서는 죽음, 향락, 사랑의 비극을 체험하며 孤獨한 靈魂의 悶부름을 通하여 새로운 삶, 참다운 삶의 生意識을 追求해가고 있다. 「廢墟의 울음」의 洛三이 <참다히> 살다 죽는 투쟁도 이런 참삶의 苦鬪라 하겠다.

「廢墟의 울음」에서는 이러한 思想이 보다 現實의이며 積極的으로 나타난다. 民族과 同胞를 구하기 위한 보다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民族主義 그리고 同胞文學 理論의 提唱, 그리고 이의 行動 實踐으로 죽음의 悲劇을 招來하지만 이 絕望的 生은 無限한 生成의 意味를 지닌다.

그리고 이 세 作品의 主人公이 다 農村(시골) 出身으로 農村現實의 깊은 認識, 農村에의 強熱한 意志 農民意識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起源 洛三 文洙 이 文學青年들의 思考는 無政府主義 社會主義 自由主義 浪漫主義 厭世主義 등의 不安한 비구름에 덮혀 갈팡질팡하기도 한다. 여기에 죽음 도피 변질 등으로 끝나는 悲劇的 사랑의 眞實은 社會的 民族的 現實로 發展하며 이러한 積極的이고 情熱的인 生의 方法, 歷史的 存在者로서의 眞實한 生意識이 感動的 構造로 形象되고 있다.

狀況안의 存在, 現實人으로서의 自覺과 새로운 삶 참다운 삶에의 追求, 그것에 對한 積極的이고 情熱的인 實踐, 農村에의 意志 그리고 그 歷史的 生意識... 依支할 곳 없는 荒漠한 廢墟를 向한 이러한 生의 展開方法은 1939년 <第一課 第一章>부터 새로 始作한 農村을 向한 積極的이고 實踐的인 生의 形象으로 連結되고 있다. 李無影의 初期 思想은 이렇게 發展 成長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農民意識을 가지고 農民小說을 쓴 最初의 作家>⁽⁵⁷⁾가 되었던 것이다.

이 영성한 小考가 이런 連絡을 위해 初期作品들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考察 그리고 作品形象에 對한 考察의 契機가 되었으면 한다.

(57) 朴榮濤: 「農民作家 李無影」 『李無影代表作全集』 3卷, 新丘文化社, 1974)

Etude sur la pensée littéraire dans les premières oeuvres de Li mou-young

—défi contre sans-appui et ruines—

Dong-hié Li

Nous avons étudié les premières oeuvres de Li mou-young en cherchant la bibliographie, la première oeuvre et la pensée littéraire. Cela veut dire qu'on arrange la tendance littéraire de ce temps-là, en même temps qu'on peut réestimer la première oeuvre de Li mou-young, et qu'on peut supposer comment la pensée littéraire la première oeuvre se développe-t-il dans ses oeuvres totales.

Li mou-young a dit que <la jeunesse sans appui>, <larmes des ruines> (son premier roman) <révolte> et <deux instructions> (première oeuvre) sont ses premières oeuvres. Pour sa première oeuvre, il a ainsi désigné les quatre oeuvres. Cela vient de ce fait qu'il n'a pas mis au point une oeuvre.

Lors de débutant, il a utilisé plusieurs noms littéraires. En particulier, au temps de son premier roman, il n'a pas été considéré comme le premier roman à cause de nom littéraire différent de son nom propre.

Nous avons constaté que c'était l'oeuvre de Li mou-young, dont le niveau est très haut. Nous proposons que ces deux romans sont vraiment les premières oeuvres de Li mou-young.

Si la proposition accepte avec objectivité, ces deux oeuvres se montrent de nouveau une grande chose dans les domaines littéraires coréennes de 1920.

La conscience de la vie et la structure de la pensée qui constitue le sujet sont trop diverses.

Nous pouvons voir une volonté de sortir dans <sortie de la maison de Dal-Soun>. La résistance contre la richesse, la règne, et les persecuteurs, ce serait la pensée littéraire.

de ses premières oeuvres.

Il semble que la haine de Ki-Weon contre le bourgeois dans <jeunesse sans appui>, la tragédie et l'expérience pénible de Lak-Sam, Moun-Sou, ce seraient tous liés à ce sujet.

Dans <jeunesse sans appui>, Li mou-young cherche une vie qui se montre de nouveau avec frémissement de l'âme solitaire après une expérience de la mort, de l'amour, et de la jouissance. Lak-Sam dans <larmes des ruines> dont la mort est bien étroitement lié à la conscience.

Cependant, dans <larmes des ruines>, la conscience pareille se montre plus réelle, et plus positive. La nationalisme pour sauver la nation et sa compatriote, la littérature pour ça, la théorie et l'action, ça donne lieu à la tragédie de la mort. Mais la vie déçue contient une conscience indéfinie de naissance nouvelle.

Les trois héros sont venus de la campagne. Ils ont tous une conscience profonde à la campagne et une passion à elle. Ki-Weon, Lak-Sam, Moun-Sou dont la pensée est couverte par la nuage épaisse de l'anarchisme, de la socialisme, de libéralisme, de romantisme et de pessimisme ont perdu la route propre. Au bout de l'amour tragique, les jeunes gens rencontrent la réalité de sa patrie. Une vie positive et active nous font sentir une émotion dans le coeur.

Une existence dans une circonstance, conscience de soi-même, vie nouvelle, recherche de la vie véritable, action positive et passionnante, passion vers la campagne, conscience de la vie historique...façon d'étendre la vie sont étroitement liées avec la formation de la vie vers la campagne qui a commencé à partir de 1939 dans <première chapitre première leçon>. Nous voyons en bref une démarche de la pensée littéraire de Li mou-young dans l'étude. Il est certain qu'il est premier romancier d'écrire roman avec la conscience pour la campagne.

Nous voudrions que cette étude donnera une occasion de la critique nouvelle plus large et plus profonde aux premières oeuvres de Li mou-young qu'auparavant, en même temps à la formation de sa littérature totale.